[문제 3] 제시문 [가]와 [나]를 근거로 [다]가 의미하는 것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의 '랭스턴 휴스'가 보인 삶의 태도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워튼 스쿨의 경제학 교수인 스티븐슨과 울퍼스는 세계 각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삶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소득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소비 생활을 통해 물질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고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절한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강, 지적인 활동, 여가, 이웃과의 관계, 안전 등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질 높은 삶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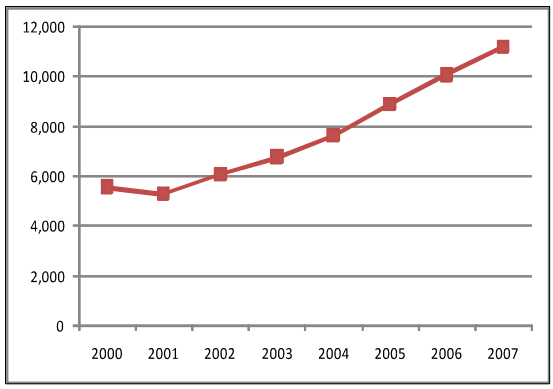
출처: 최병모 외, 『고등학교 사회』, 미래엔, 2013, 239쪽.

[나] 예를 들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수돗물이 오염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수돗물 대신 시장에서 생수를 사서 먹을 것이다. 이때 생수의 판매 가치는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어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경제가 성장하였더라도 그 성장의 결과가 일부 계층에게 편중된다면 빈부 격차의 확대와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필요하지만, 경제 성장이 항상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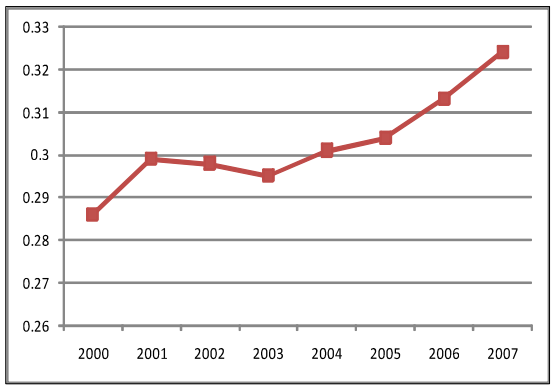
출처: 서태열 외, 『고등학교 사회』, 금성출판사, 2013, 288쪽.

[다] 한국의 국내총소득(GNI) 추이 및 지니계수 추이

< 한국의 국내총소득(GNI) 추이(억 달러) >



< 한국의 지니계수 추이 >



출처: 통계청.

* 지니계수란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0과 1 사이의 값을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4 이상이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다고 평가된다.

출처: 박병익 외, 『고등학교 사회』, 천재교육, 2013, 255쪽.

[라] "우리는 빵을 원한다. 그러나 장미도 원한다." 이 구호는 1908년, 미국 뉴욕 방직공장에서 남성에 비해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던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서 나온 구호였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빵(생존권)이 강조되면서 장미(인권)는 빵을 위해 희생되어도 좋은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시인 랭스턴 휴스는 "내일의 빵으로는 나는 살 수가 없다."라며, 풍요로운 미래의 약속을 거부하고 단호하게 '오늘의 자유'를 선언하였다.

출처: 류재영 외, 『고등학교 사회』, 천재교육, 2013, 286쪽.

문제 1

□ 출제 의도

○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주제어를 찾아내고 그에 토대하여 각 지문의 내용을 요약·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각 제시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시문 [가]는 '잡풀'로 상징되는 자연의 생명들이 각자의 생김새나 주변의 시선에 관계없이 서로 어울려 사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시이다.
○ 제시문 [나]는 인디언 화자의 입장에서 자연(짐승들)을 더불어 살아가는 형제가 아닌, 약탈과 정복의 대상으로 대하는 백인들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 제시문 [다]에서의 필자는 모든 생물의 삶과 죽음이 자연의 거대한 순환논리에 속해 있으며, 자연은 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끝없이 생성하므로 자연계 안에서의 생물의 사사로운 죽음 역시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대자연의 시각에서 봐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 자료 출처

○ [가]: 고형진 외, 『고등학교 문학 II』, 천재문화, 2011, 91쪽. <리상각, '잡풀'>
○ [나]: 박종호 외, 『고등학교 문학 II』, 창비, 2012, 335쪽. <시애틀, '우리는 결국 모두 형제들이다'>
○ [다]: 정재찬 외, 『고등학교 문학 II』, 천재교과서, 2012, 77쪽. <소로, '월든'>

□ 평가 기준

1)번 문항

○ 주제를 드러내는 단어를 찾는 능력을 평가함(5점)

◈ 채점 기준
· [가]에서 '어울려 산다'를 찾아내면 5점, 그렇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함
· 그 외의 다른 단어들 혹은 제시문 밖의 단어로 답할 경우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자연 속에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요약함(10점)

◈ 채점 기준
· 일차적으로 제시문에 근거한 답안이어야 하며, 위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여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가]를 바탕으로 자연을 대하는 백인들의 태도를 요약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7점)

◈ 채점 기준

· [가]에 토대하여 볼 때 [나]에서 백인들이 자연을 약탈과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제대로 설명, 요약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7점을 부여함

○ [가]에 토대하여 [다]의 필자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요약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8점)

◈ 채점 기준

· [가]에 토대하여 [다]의 필자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제대로 요약하고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8점을 부여함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에서 자연의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잘 요약하고 있는 두 단어는 "어울려 산다"이다. 여기에서 '잡풀'로 상징된 생물들은 자신의 외모나 차림새와 관계없이, 그리고 '길손'으로 상징되는 외부의 다른 시선에 관계없이, 서로 어깨를 비비고,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맞대고 소곤거리며 어울려 산다. 그러나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이들에게도 거목의 꿈이 있다. 이들은 더 큰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은 세상 안에서 빛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 꿈의 토대는 더불어 사는 것이다.

2번) 예시 답안

[가]에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울려' 사는 것이었다. [나]의 화자는 [가]처럼 더불어 사는 것의 당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글에 묘사된 백인들은 '기차'와 '총'으로 상징된 바 문명의 힘으로 자연('물소')을 정복하고 약탈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의 입장과 다르다. [다]의 필자는 [가]처럼 자연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보지만, 나아가 생사를 주관하는 자연의 거대한 순환논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자연의 거대하고도 풍요로운 질서를 이해하고 그 순환의 질서를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 2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종교적 율법이나 민간신앙 등의 전통 사상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수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슬람 율법의 준수가 개인의 삶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와 메소아메리카 선주민들의 민간신앙이 마야 문명의 기초를 닦는 동력이 되었던 경우를 함께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의 전통 사상은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묻고 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 문제는 이슬람 율법과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사례를 통하여 종교와 신앙이 인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보편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재성찰해 보도록 함으로써 보편적인 이해의 틀 속에서 우리 자신의 상황과 특성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 제시문 [가]는 이슬람 율법과 관련하여 발생한 아멜리아 집안의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 상황을 제시한 글로, 전통 사상의 부정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이다.

○ 제시문 [나]는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발전 과정과 관련하여 신앙과 믿음이 끼친 영향 또는 그에 근거한 지배 질서의 성취를 제시한 글로, 전통 사상의 긍정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이다.

○ 제시문 [다]는 전통 사상의 정의와 가치를 개념적으로 설명한 글로, 제시문 [가]와 [나]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서 제시한 전통 사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이해를 요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다.

□ 자료 출처

○ [가]: 윤여탁 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I』, 미래엔, 2011, 347쪽. < '코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

○ [나]: 이남호 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I』, 비상교육, 2011, 265-266쪽. < '인디오 세계의 삶과 죽음' >

○ [다]: 박찬구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2011, 46쪽. < '동양과 한국 사상의 현대적 의의' >

□ 평가 기준

○ 제시문 [가]와 [나]의 중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함(10점)

◈ 채점 기준

· 제시문 [가]와 [나]의 중심 내용을 모두 파악하여 기술했으면 10점

· 제시문 [가]와 [나]의 중심 내용 가운데 하나만을 파악하여 기술했으면 5점

· 제시문 [가]와 [나]의 중심 내용을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기술했으면 0점

- [가]의 중심 내용 : 이슬람 율법 자체가 현대인의 삶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 [나]의 중심 내용 : 메소아메리카인의 민간신앙(믿음)이 문명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점

○ 제시문 [다]의 전통 사상의 본질과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함(20점)

◈ 채점 기준

· 전통 사상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서술한 경우
- 제시문 [가]와 [나]를 모두 논거로 활용하여 서술한 경우 20점
- 제시문 [가]와 [나] 가운데 하나만 논거로 활용하여 서술한 경우 15점
- 제시문 [가]와 [나]를 논거로 활용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10점

· 전통 사상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서술한 경우
- 제시문 [가]와 [나]를 모두 논거로 활용하여 서술한 경우 15점
- 제시문 [가]와 [나] 가운데 하나를 논거로 활용하여 서술한 경우 10점
- 제시문 [가]와 [나]를 논거로 활용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5점

· 그 외의 경우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 예시 답안

전통 사상이 오늘의 우리에게 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에 대하여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회의와 부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정신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전통 사상이 시간을 뛰어 넘어 오늘날에도 그 정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부단한 자기 갱신을 통해서였음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제시문 [가]에서 보듯 인간의 삶을 구속하고 갈등과 다툼을 야기하는 일종의 도그마로 전락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 전통 사상이다. 그러면서도 전통 사상은 우리에게 세계 인식의 틀을 제공해 왔으며 현실에 대한 대처 방식을 안내해 주기도 하였다. 신에 대한 메소아메리카인의 믿음이 마야 문명 창조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제시문 [나]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전통 사상은 인간의 삶과 긴밀한 연관을 맺으면서 세계 인식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역사 창조의 에너지원이 되어 왔다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강력한 권위를 가진 규범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인간 생활을 속속들이 규정하고 간섭하는 부정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우리는 전통 사상의 이와 같은 양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현실을 헤쳐 나가고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가야 할 것이다.

문제 3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제시문 [가]는 적절한 소득 수준이 삶의 질을 유지해 준다는 주장이다. 인간은 적절한 1인당 국내총생산을 전제로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제시문 [나]는 경제성장이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경제성장 과정이 국내총생산을 증가시키지만 그것이 삶의 질과 직결되지는 않으며, 성장의 결과로 늘어난 소득이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면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제시문 [다]는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한국의 국내총소득은 늘었지만 지니계수를 통해 드러나는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 제시문 [라]는 랭스턴 휴스가 생존권을 위해 현재의 인권(자유)을 미룰 수는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오늘의 자유'로 표상되는 현재의 삶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제시문 [가]와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시문 [다]의 그래프를 해석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제시문 [라]의 랭스턴 휴스가 가진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것이다.

□ 자료 출처

○ [가]: 최병모 외, 『고등학교 사회』, 미래엔, 2013, 239쪽. < '경제 성장과 삶의 질' >
○ [나]: 서태열 외, 『고등학교 사회』, 금성출판사, 2013, 288쪽. < '경제 성장과 삶의 질' >
○ [다]: 박병익 외, 『고등학교 사회』, 천재교육, 2013, 255쪽. < '경제 성장과 삶의 질' >
○ [라]: 류재영 외, 『고등학교 사회』, 천재교육, 2013, 286쪽. < '경제 성장과 삶의 질' >

□ 평가 기준

○ [가]와 [나]의 중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함(10점)

◈ 채점 기준
· [가]에서 적절한 소득 수준이 삶의 질을 유지해 준다는 논지와 [나]에서 경제성장이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지를 이해하여 기술했으면 10점
· [가]와 [나]의 논지 가운데 하나만을 이해하여 기술했으면 5점
· 각 제시문의 논지 파악 여부와 답안의 논리성과 유기성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다]의 자료에서 유의미한 해석을 평가함(15점)

◈ 채점 기준

· [가]에서 언급된 국내총생산 개념을 국내총소득 개념과 연관시키고, [나]에서 언급된 빈부격차의 문제를 지니계수와 연관시키면서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한국의 국내총소득은 늘었지만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기술했으면 15점
· [가]와 [나]를 단순하게 설명하면서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한국의 국내총소득은 늘었지만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을 이해하고 기술했으면 10점
·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없이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한국의 국내총소득은 늘었지만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을 이해하고 기술했으면 5점
· 각 제시문의 논지 파악 여부와 답안의 논리성과 유기성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라]의 '랭스턴 휴스'의 태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함 (15점)

◈ 채점 기준
· [라]의 랭스턴 휴스가 내일의 생존권(빵, 풍요로운 미래)보다는 오늘의 삶의 질(장미, 인권, 오늘의 자유)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가], [나]의 논지와 [다]의 해석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유기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하였으면 15점
· [라]의 랭스턴 휴스가 내일의 생존권(빵, 풍요로운 미래)보다는 오늘의 삶의 질(장미, 인권, 오늘의 자유)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였으나, [가]와 [나]의 논지와 [다]의 해석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유기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하지 못했으면 10점
· [라]의 랭스턴 휴스가 내일의 생존권(빵, 풍요로운 미래)보다는 오늘의 삶의 질(장미, 인권, 오늘의 자유)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와 [나]의 논지와 [다]의 해석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였으면 5점
· 각 제시문의 논지 파악 여부와 답안의 논리성과 유기성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예시 답안 1>

[가]는 적절한 소득수준이 전제되어야 기초적인 소비를 통해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나]는 경제성장이 소비를 늘릴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소비가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없으며, 늘어난 소득이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면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반된 주장이 대립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처럼 한국의 국내총소득은 늘었지만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지니계수가 점차 상승하여 소득분배가 악화됨으로써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한편, [라]에서 랭스턴 휴스는 내일의 생존권(빵, 풍요로운 미래)보다 오늘의 삶의 질(장미, 인권, 오늘의 자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삶이란 경제적 풍요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유로부터 나온다고 보았다.

인간은 미래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현재의 자유로운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삶은 인간이 자아실현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시 답안 2>

[가]는 적절한 소득수준이 전제되어야 기초적인 소비를 통해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나]는 경제성장이 소비를 늘릴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소비가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없으며, 늘어난 소득이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면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반된 주장이 대립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처럼 한국의 국내총소득은 늘었지만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총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만이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분배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한편, [라]에서 랭스턴 휴스는 내일의 생존권(빵, 풍요로운 미래)보다 오늘의 삶의 질(장미, 인권, 오늘의 자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삶이란 경제적 풍요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유로부터 나온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유로운 자신의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득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적절한 소득은 소비생활을 통해 물질적인 삶의 조건을 확보하고 질 높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